

고려 대몽항쟁기 南道지역의 海島 入保와 界首官

윤 경 진*

1. 머리말
2. 海島 入保의 시행과 운영 원리
3. 南京·廣州의 江華 습입과 忠州·淸州의 해도 입보
4. 全州의 槽島·押海島 입보와 羅州의 珍島 입보
5. 東京의 해도 입보 시도와 淸州의 南海島 입보
6. 맺음말

1. 머리말

고려는 몽고와 오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山城 및 海島에 入保하는 전술을 택했다. 이것은 전력의 열세로 몽고와 직접 맞서 싸우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고종 18년(1231) 몽고와 1차 전쟁을 치른 후 집권자 崔瑀는 江華 遷都를 단행하면서 전국 각지에 대해서도 산성과 해도에 입보하여 항전을 이어가도록 했다.

* 경상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산성 입보가 전통적인 방어 전술이었던 것과 달리 해도 입보는 산성 입보의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것이었다.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해도 입보의 비중도 커졌다. 산성 입보는 생활 기반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 운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해도 입보는 생활기반과 분리되기 때문에 사회에 큰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었다. 해도에 입보했던 北界 州鎮 중에 出陸 후 본거지로 가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僑寓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은 그 예이다. 따라서 해도 입보에 대한 고찰은 대몽항쟁으로 야기된 고려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지금까지 해도 입보책은 대몽항쟁을 다룬 제반 논고에서 보편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이를 專論으로 다룬 연구는 주로 전쟁사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해도 입보의 전개 과정과 그에 대한 몽고의 전술 변화를 고찰한 연구를 발판으로 하여¹⁾, 입보처로서 ‘戰略海島’의 범주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고찰하거나²⁾, 해도 입보와 연계된 해상 교통로 문제를 천착한 연구 등이 있다.³⁾ 이를 통해 해도 입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확보되었고, 전쟁사적 관점에서 해도 입보의 의미와 고려 및 몽고의 전략, 입보가 이루어진 해도의 구체적인 상황 등이 확인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아직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 그 하나로 해도 입보에서 兩界 州鎮과 南道 郡縣을 명확히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⁴⁾ 몽고군과의 직접 충돌을 피해 해도에 들어가 항전을

1) 尹龍燾, 「高麗의 海島入保策과 蒙古의 戰略變化: 麗蒙戰爭 전개의 一樣相」, 『歷史教育』 32, 1982.

2) 姜在光, 「對蒙戰爭期 崔氏政權의 海島入保策과 戰略海島」, 『軍史』 66, 2008. 여기서 ‘전략해도’란 육지와 가까우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주현민과 별초군이 입보해 있는 섬을 가리키는 용어로 제시되었다. 전쟁사적 관점에서 입보 해도의 유형화라는 데 의미가 있지만, 계수관 등 지방제도의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약점이 있다.

3) 姜在光, 「對蒙戰爭期 西·南해안 州縣民의 海島入保抗戰과 海上交通路」, 『지역과역사』 30, 2012.

4) 일반적으로 南道는 兩界와 구분하여 五道 지역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해도 입보와 관련해서는 開京 이남의 界首官 관할지역, 곧 楊廣道·全羅道·慶尙道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개경 이북의 西海道는 계수관 단위의 운영체계가 공존하고 있지만 도의 운영체계가 일찍부터

지속한다는 전술적 측면에서 보면, 양계와 남도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자연 기존 연구는 이를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양계와 남도의 사례를 별 구분 없이 혼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도 입보를 대몽항쟁이라는 틀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통치 및 사회운영의 관점에서 다를 경우, 지역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양계와 남도는 근본적으로 다른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단위의 편성과 군사 운영의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가 지적된다.

주지하듯이 남도는 외관이 파견된 군현(主縣)이 그렇지 않은 다수의 屬縣을 관할하는 ‘주현-속현체계’를 바탕으로 편성되었다. 각급 군현의 운영은 邑司가 담당하였고, 外官은 다수의 읍사를 관할하는 상급체제로 기능하였다. 하지만 兩界(登州 이남은 제외)는 속현이 없고 각 州鎮에 모두 수령이 파견되어 독립적인 운영단위가 되었다.⁵⁾

지방군 운용을 위한 軍事道는 수령이 파견된 단위를 바탕으로 편성되었다. 따라서 남도는 주현-속현 단위로 군사도를 구성한 반면, 양계는 각 주진이 모두 개별 군사도가 되었다. 그런데 남도는 군사도 위에 다시 광역 운영체계인 界首官을 단위로 군사 운용이 이루어졌다.⁶⁾ 해도 입보가 몽고군에 맞서기 위한 전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과정에는 군사 운용에 있어서 양계와 남도의 차이가 반영될 것임은 물론이다.

한편 입보내용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해도 입보는 먼 거리를 이동해 바다를 건너야 하며, 일단 입보하면 장기간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도 입보는 일시적 이동으로 운용될 수 있는 산성 입보와 달리 궁극적으로 행정단위의 이동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실제 북계 주진은 군사 거점의 성격이 강하고 인구 규모도 작았기 때문에

부각되었고, 특히 해도 입보에서는 北界 州鎮과 연동하는 측면이 있다. 交州道는 관내에 계수관이 없기 때문이다.

5) 고려 주현-속현체계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는 尹京鎮, 「高麗 郡縣制의 운영원리와 主縣-屬縣 領屬關係의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10, 2001 참조.

6) 윤경진, 「고려전기 界首官의 운영체계와 기능」, 『東方學志』 126, 2004.

해도 입보는 사실상 행정단위의 이동을 수반하였다.⁷⁾

하지만 남도 군현은 생산 기반이 연계되어 있고 대상주민 수도 많았기 때문에 행정단위 전체가 일시에 입보할 수는 없었다. 자연 입보는 일정한 단계를 밟아 이루어졌는데, 일단 지역적으로 해도에 가까운 군현, 혹은 중요도가 높은 거점 군현이 우선 입보하게 된다. 그리고 해도 입보가 군사적 향전의 의미를 가지므로 군사 위주의 입보가 선행된다. 곧 일정한 권역의 주력군대 위주로 해도에 입보하여 전력을 보존하고 필요할 때 출륙하여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때 다수의 주민은 현지에 남아 생산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입보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산성 입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성에도 일정한 군사력이 남아 방어에 임하게 된다. 결국 현실적으로 남도 지역에서는 산성 입보와 해도 입보가 병행적으로 구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도의 해도 입보를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없다. 이는 무엇보다 남도의 해도 입보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대개의 자료는 남도지역이 대상이 됨을 보여줄 뿐, 입보 해도와 그곳에 입보한 행정단위가 어디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거의 없다.

하지만 지역적 특성이 전혀 다른 양계와 남도의 해도 입보를 구분없이 이해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론적 시도가 필요하다. 자료에 보이는 사례들을 운영체계의 측면과 연결해 접근한다면, 제한적이거나 남도의 해도 입보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곧 지리적 여건을 매개로 입보 해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그 위치를 판단하고, 이를 군사운영체계와 연계하여 입보 행정단위가 어디인지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으로 입보 행정단위의 속성을 이해함으로써 그와 연계된 입보 해도를 추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자료의 제약으로 많은 부분 추론에 의지해야 하는 한계가 있지만,

7) 北界 州鎮의 海島 入保에 따른 행정적 변화에 대해서는 윤경진, 「고려 후기 北界 州鎮의 海島 入保와 出陸 僑寓」, 『震檀學報』 109, 2010 참조.

이를 통해 해도 입보의 전체적인 구도를 그려냄으로써 그 의의를 이해하고 관련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시각에서 대몽항쟁기 남도지역의 해도 입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해도 입보의 전개과정을 개괄하면서 그 운영 원리를 정리할 것이다. 이어 지역별로 해도 입보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특히 남도의 해도 입보가 광역 운영체계인 界首官을 매개로 전개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지리적 관계와 전항 등을 연계하여 각각의 입보 해도까지 추출해 볼 것이다.

2. 海島 入保의 시행과 운영 원리

고종 18년(1231) 몽고와 1차 전쟁을 치른 후 집권자 崔瑀는 장기 항전을 선택하고 고종 19년(1232) 강화 천도를 단행하였다.⁸⁾ 이와 더불어 諸道에 사신을 보내 백성을 山城과 海島에 들어가도록 하였다.⁹⁾ 이것은 1차 전쟁을 치르면서 기존의 전술이었던 山城 入保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었다.

고종 18년(1231) 8월 몽고군은 咸新鎮(義州)을 포위한 데 이어 鐵州를 도륙하였다.¹⁰⁾ 이어 龜州城과 西京城, 慈州城은 함락되지 않았지만¹¹⁾ 龍州城은 항복하였고¹²⁾, 宣州와 郭州는 함락되었다.¹³⁾ 고려 정부는 동년 10월 三軍을 보내 安北府 城外에서 몽고군과 일전을 벌였으나 대패

8) 『高麗史』 권23, 고종 19년 6월 乙丑 “崔瑀尙王 遷都江華”

9) 『高麗史』 권129, 列傳42 叛逆3 崔忠獻 附 崔怡 “又遣使諸道 徙民山城海島”

10) 『高麗史』 권23, 고종 18년 8월 壬午 “蒙古元帥撒禮塔 圍咸新鎮 屠鐵州”

11) 『高麗史』 권23, 고종 18년 9월 丙戌 “蒙兵圍龜州城 不克而退”

『高麗史』 권23, 고종 18년 9월 癸巳 “蒙兵攻西京城 不克”

『高麗史』 권103, 列傳16 崔椿命 “高宗十八年 爲慈州副使 蒙古兵圍州 椿命率吏民 固守不下”

12) 『高麗史』 권23, 고종 18년 9월 癸卯 “北界馳報 蒙兵圍龍州 城中請降 副使魏瑫 被擄”

13) 『高麗史』 권23, 고종 18년 9월 壬子 “蒙兵陷宣郭二州”

하였다.¹⁴⁾ 안북부의 저지선을 뚫은 몽고군은 주주까지 바로 치고 내려와 성을 도륙하였고¹⁵⁾, 급기야 京城의 서부에 진을 치고 興王寺를 공격하기에 이르렀다.¹⁶⁾

몽고군이 압록강을 건넌 지 4개월만에 다수의 주진이 함락되고 경성이 직접 공격을 받는 상황에 이른 것인데, 이는 북계에서 방어선을 형성하여 침입을 저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현종 때 거란 성종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된 위기를 겪은 고려는 이후 州鎮을 추가 설치하여 압록강 방어선을 보강하는 등 북계의 방어력 강화에 힘썼다.¹⁷⁾ 그러나 몽고군의 침입에 방어선이 뚫림으로써 기존의 방어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런데 1차 전쟁 당시 黃州와 鳳州의 수령이 백성을 이끌고 鐵島에 入保한 일이 있었다.¹⁸⁾ 이 사례는 정부의 입보책에 의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수령 등이 안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도모한 것이었다. 황주와 봉주는 서경에서 개경으로 이어지는 간선로에 있었기 때문에 몽고군의 직접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다. 몽고군에 맞서기 어렵다고 판단한 수령들은 해도에 들어가 예봉을 피했다. 이를 통해 인명과 전력을 보전함으로써 사후에 대응을 도모할 수 있었다는 점은 강화 천도와 해도입보책이 선택되는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¹⁹⁾

고종 19년(1232) 6월 강화 천도가 단행된 후²⁰⁾, 동년 8월에는 西京巡撫使 閔曦와 司錄 崔滋溫이 達魯花赤을 살해하려는 것을 안 西京人 등이 몽고군의 보복을 우려하여 반란을 일으킨 일이 있었다. 최자온이 이들에게

14) 『高麗史』 권23, 고종 18년 10월 癸酉

15) 『高麗史』 권23, 고종 18년 11월 甲辰

16) 『高麗史』 권23, 고종 18년 12월 壬子 “蒙兵分屯京城四門外 且攻興王寺”

17) 윤경진, 「고려 현종말-문종초 北界 州鎮 설치와 長城 축조」, 『軍史』 79, 2011.

18) 『高麗史』 권23, 고종 18년 9월 丁酉 “蒙兵至黃鳳州 二州守率民 入保鐵島”

19) 전쟁 초기 咸新鎮(義州)의 副使 全憫이 薪島에 입보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주둔한 몽고인을 죽이고 정부가 보내준 배를 타고 남하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전간 자신도 뒤에 배를 타고 개경으로 오다 익사하였다. 따라서 이 조치는 정부의 지시에 따른 전략적 차원의 입보로 보기 어렵다.

20) 『高麗史』 권23, 고종 19년 6월 乙丑 “崔瑀脅王 遷都江華”

구금되자 留守와 判官, 分臺御史, 六曹의 관리들이 모두 楮島로 도망하였다.²¹⁾

이 조치는 서경인의 반란을 계기로 하고 있지만, 達魯花赤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해도 입보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취해진 조치였다고 보인다. 유수를 비롯한 관리들이 대거 楮島로 도망한 것을 보면, 유사시에 저도에 입보하려는 계획 아래 일이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경은 개경과 더불어 고려의 도읍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북계 주진의 중심이었던 만큼, 강화 천도에 수반하여 가장 먼저 입보가 준비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다른 지역의 입보 과정에도 적용된다. 기존의 전략이던 산성 입보의 경우, 평상시에 무기와 식량을 확보해 두고 있어 곧바로 입보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해도에는 입보한 군민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미리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대몽항쟁기에 전술적으로 새롭게 취해진 것이었기 때문에 입보에 앞서 그와 관련된 준비가 있어야 했다. 특히 西京과 같은 거점지역의 경우 입보하는 인원이 많은 만큼 예비 조치의 필요성은 더 컸다.

이후 북계 주진의 해도 입보가 진행되었다. 『고려사』 지리지에는 일부 주진의 해도 입보 기사가 보이는데, 대개 고종 18년(1231)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는 1차 전쟁이 진행되던 시기로서 입보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기사는 입보의 원인이 되는 몽고의 침입에 그 결과인 입보 상황을 연결하여 정리한 결과이다.²²⁾

북계 주진의 입보는 몇 가지 특징이 보인다. 우선 지역에 따라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義州에서 安北府, 西京으로 이어

21) 『高麗史』 권23, 고종 19년 8월 壬戌 “執崔滋溫 囚之 留守崔林壽 及判官分臺御史六曹員等皆逃竄于楮島”

22) 강제광은 고려의 해도입보책이 고종 17년 몽고의 도발 분위기에 대응하여 입안되었고, 고종 18년 1차 침입 때 실행되었다고 보았다(강제광, 앞의 논문, 2008, 31~37쪽). 그러나 처음부터 해도 입보가 기획되었다면 1차 전쟁 과정에서 북계의 주요 주진이 城을 근거로 몽고에 맞서거나 함락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해도 입보는 산성 입보로는 방어가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전략 변화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윤경진, 앞의 논문, 2010, 119~124쪽).

지는 간선로에 있는 주진들이 입보하였다. 그리고 이보다 내륙에 있는 주진들은 고종 35년(1248) 2차 입보 명령에 따라 해도에 들어갔다.²³⁾

다음에 한곳에 다수의 주진이 함께 입보하는 경향을 보였다. 義州와 靜州가 한곳에 들어갔고²⁴⁾, 안북부가 입보한 昌麟島에는 慈州와 瓮津縣도 입보하고 있었다.²⁵⁾ 창린도는 웅진현 서쪽 70리에 있는 섬이다. 안북부가 이곳까지 내려와 입보한 이유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북계 서해안지역에는 입보할 만한 섬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규모가 큰 섬이 많은 서해도 이남지역으로 내려와 입보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입보한 강화도 주변에 군사력을 배치하여 이를 성원할 수 있게 하는 측면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강화도 주변 도서에 많은 주진이 입보하게 되었다. 『고려사』 지리지 연혁에 따르면 宣州와 昌州는 紫燕島에 입보하였다. 창주는 출륙한 뒤 본토로 가지 못하고 郭州 인근에 僑寓하였는데, 당초 淸州도 자연도에 입보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연도는 현재의 영종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강화도 바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앞서 崔忠獻이 熙宗을 폐위한 후 강화현에 안치했다가 자연도로 옮긴 것을 비롯해²⁶⁾ 유배지로 활용되곤 하였다. 이러한 기반을 활용하여 다수의 북계 주진이 입보한 것이다.

여러 주진이 한 섬으로 들어가는 것은 실제 입보할 수 있는 도서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있지만, 군사력을 모아 방어력을 높이고 관리와 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 이러한 원리는 앞서 고종 초 몽고의 침입이 예상될 때 미리 마련한 산성입보책에서 기획된 것이었다.

23) 『高麗史』 권23, 고종 35년 3월 “命北界兵馬使盧演 盡徙北界諸城民 入保海島”

24) 『高麗史』 권23, 고종 22년 3월 壬子 “詔 義靜二州 人物凋殘 且移入水內 不得耕種 不宜各置官吏 其以靜州副使 兼理義州”

25) 『高麗史』 권25, 원종 원년 정월 戊戌 “西海道按察使馳報 安北都領元振叛 執其州副使文秀及慈州副使金脉 殺之 甕津縣令鄭崇 降於蒙古”

26) 『高麗史』 권21, 희종 7년 12월 癸卯 “忠獻廢王 遷于江華縣 尋遷紫燕島 放太子社于仁州”

戶部侍郎 崔正芬 등 8인을 보내 北界 興化道の 諸城을 나누어 순찰하여 兵器를 검열하고 軍資를 비축하도록 하고, 여러 小城을 아울러 大城에 입보하도록 하였다. 당시 몽고가 가을이 되면 다시 올 것이라는 첩자의 말이 있어 대비한 것이다.²⁷⁾

위에 언급되어 있듯이 여러 개의 小城을 大城에 함께 입보하도록 했는데, 이는 작은 성들에 군사력이 분산되어 있을 경우 방어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몽고군의 각개 공격에 쉽게 함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군사력을 높여야 했다.

이러한 속성은 해도 입보에서도 다르지 않아, 상황에 따라 한곳에 여러 주진이 입보하였다. 따라서 가급적 큰 섬에 여러 주진이 습입하는 것이 유효하였기 때문에 큰 섬은 해도 입보에 우선적인 대상으로 고려되었을 것이다.²⁸⁾ 남도지역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관철되었다. 다만 군사 편성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습입의 형식보다는 군사 거점의 입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할 것이다.

고려 정부가 강화 천도에 이어 해도 입보를 전개한 것은 기존의 방어 전략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었다. 이는 기존의 산성 입보로는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산성의 경우 기존의 생활 터전과 가까이 있고 미리 무기와 식량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빠른 입보가 가능했다. 그러나 제한된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는 있어도 장기전에는 어려움이 컸다. 생활 터전이 성밖에 있는 만큼 경작을 위해 성밖으로 나가야 했는데, 이는 공격받을 위험이 따르는 것이었다. 고종 23년(1236) 7월 몽고군 한 무리가 慈州 東郊에서 벼를 베고 있던 주민 20여 인을 잡아죽인 것은 그 예이다.²⁹⁾

27) 『高麗史』 권22, 고종 6년 7월 “遣戶部侍郎崔正芬等八人 分巡北界興化道諸城 檢閱兵器儲備軍資 并諸小城 入保大城 時諜者有蒙古乘秋復來之語 故備之”

28) 입보 해도의 선정에는 군사적 경제적 가치도 아울러 고려되었을 것인데 이 부분에서도 군현이 설치된 큰 섬이 우선적인 가치를 지닐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29) 『高麗史』 권23, 고종 23년 7월 癸酉 “蒙兵二十餘騎 入慈州東郊 擄刈禾民二十餘人 皆殺之”

그렇다고 적절할 때 성을 나가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수확하지 않으면 식량 부족이 야기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경작과 수확에 나서려는 입보민과 방어를 신경을 쓰는 관리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東州에서는 防護別監 白敦明이 성의 출입을 금하면서 농작물 수확을 요청하던 州吏를 처형하여 민심이 크게 동요한 일이 있었다.³⁰⁾

해도 입보는 산성 입보에 비해 장기적인 면에서 유리하였다. 물론 내륙에 있던 군현이 해도로 들어가는 것 자체는 지난한 일이지만, 섬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으면 그곳에서 개간을 통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산성에 비해 많은 인원이 입보할 수 있고, 水戰에 익숙하지 않은 몽고군을 막아내는 데 더 효과적이었다. 강화 천도 자체가 이러한 효과를 노린 것이며, 북계 주진이 산성 입보에서 해도 입보로 전환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다음 기사는 해도 입보가 가지는 이점을 반영하고 있다.

- ① 東北面兵馬使가 보고하기를, “登州城 안에는 물이 없고 또 비축된 양곡도 없어 백성이 흩어집니다”라고 하니 島內로 입보하도록 하였다.³¹⁾
- ② 뒤에 西北面兵馬判官이 되었는데, 蒙兵이 諸城을 침공하자 葦島에 입보하였다. 섬에는 10여 리 정도 개간할 만한 평지가 있었는데, 바닷물이 밀려와 개간할 수 없었다. 方慶이 제언을 쌓고 씨를 뿌리니 백성이 처음에는 고생스러워 했으나 가을에 크게 여물게 되자 사람들이 의지해 살 수 있었다. 섬에는 또한 井泉이 없어 항상 육지에 가서 물을 길어 왔는데 때때로 잡히는 경우가 있었다. 方慶이 빗물을 모아 연못을 만드니 그 근심이 없어졌다.³²⁾

30) 『高麗史』 권101, 列傳14 文漢卿 “又有白敦明者 爲東州山城防護別監 驅民入保 禁出入 州吏告曰 禾未穫 迨敵兵未至 請送出刈之 敦明不聽 遂斬之 人心憤怒 皆欲殺之”

31)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5월 丙辰 “東北面兵馬使報 登州城中 無水 且無糧儲 人民散去 乃令人保島內”

32) 『高麗史』 권104, 列傳17 金方慶 “後爲西北面兵馬判官 蒙兵來攻諸城 入保葦島 島有十餘里 平行可耕 患海潮不得墾 方慶令築堰播種 民始苦之 及秋大熟 人賴以活 島又無井泉 常陸汲

입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과 식수를 확보하는 일이었다. ①은 登州城에 식수와 양곡이 마련되지 않자 해도에 입보하도록 조치한 사례이다. 산성은 공간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식량과 식수가 미리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데, 당시 등주성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식수와 식량의 측면에서 산성보다 해도의 여건이 유리했던 만큼, 산성 입보가 한계에 부딪치면 해도 입보로 전환될 여지가 컸다.

②에서 葦島는 그렇게 크지 않은 섬으로 보이는데, 평지를 개간하여 농지를 마련하고 빗물을 모아 저수지를 만드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식량과 식수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입보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들 사례는 모두 상대적으로 작은 섬에 입보한 경우로 이해되는데, 규모가 큰 섬의 경우 식량과 식수에서 충분한 기반이 마련되었거나 새로 마련하기 용이할 것이다.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입보처에 토지를 공급하기도 했다.

- ① 忠淸, 慶尙, 全羅 3道 및 東州道와 西海道에 사신을 보내 山城과 海島에 피난한 곳을 둘러보고 土田을 헤아려 주도록 하였다.³³⁾
- ② 지금 諸道의 백성들이 제대로 살 수 없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으니 매우 슬프다. 그들이 난리를 피한 곳이 本邑과 떨어진 거리가 하루가 되지 않는 곳은 돌아가 받을 갈도록 허락하고, 그 나머지는 섬 안에 土田을 헤아려 지급하고 부족하면 연해의 閑田과 宮院田 및 寺院田을 지급하라.³⁴⁾

위의 두 기사는 각각 고종 41년(1254)과 고종 43년(1256)의 기록으로서 해도 입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往往被虜 方慶貯雨爲池 其患遂絕”

33) 『高麗史』 권78, 食貨1 經理 고종 41년 2월 “分遣使于忠慶全三道 及東州西海道 巡審山城海島避難之處 量給土田”

34) 『高麗史』 권78, 食貨1 經理 고종 43년 12월 “今想諸道 民不聊生 彼此流移 甚可悼也 其避亂所 與本邑相距程 不過一日者 許往還耕田 其餘 就島內 量給土田不足 則給沿海閑田及宮寺院田”

당시 정부는 해도에 입보한 사람들에게 토지를 지급함으로써 개간에 따르는 어려움을 줄여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것은 입보한 섬에 이미 토지가 마련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곧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입보처로서 유리한 조건이 됨을 잘 보여 주는데, 이미 군현이 설치된 섬이라면 더욱 안정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②에서 “난리를 피한 곳이 本邑과 떨어진 거리가 하루가 되지 않는 곳”은 주로 산성 입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해도 입보의 경우에도 연안의 군현이 그로부터 멀지 않은 섬에 입보했다면 하루 안에 왕래가 가능하므로 이 부분도 포함하여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섬에서 배를 타고 나와 본거지까지 가서 경작하고 하루 안에 돌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일차적으로 산성 입보와 해도 입보를 나누어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이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섬 안의 토지를 지급하도록 한 것을 보면, 해도 입보에서는 현실적으로 하루 안에 본읍과 왕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섬 안의 토지를 지급하고 모자랄 경우 연안의 사원전 등을 지급하여 생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분급 지역을 연안으로 규정한 것은 그만큼 입보 해도에서 배를 타고 나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조건마저 채워지지 않은 곳은 김방경의 사례처럼 직접 개간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³⁵⁾

이처럼 고려는 몽고의 침입에 맞서 초기의 산성 입보에서 점차 해도

35) 東界 方面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고종 45년(1258) 東界의 15州가 猪島에 입보하게 되었는데, 城은 크고 사람이 적어 지키기 어렵다 하여 兵馬使 慎執平은 竹島로 옮겨 입보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섬이 좁고 우물이 없어 사람들이 주저했으나 신집평은 강제로 입보케 하여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에 신집평은 식량 부족을 메우기 위해 다른 道에서 양곡을 운반해 올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高麗史』 권130, 列傳43 叛逆4 趙暉 “高宗四十五年 蒙古兵大至 高和定長宜文等十五州人 入保猪島 東北面兵馬使慎執平 以猪島 城大人少 守之甚難 遂以十五州人 徙竹島 島狹隘 無井泉 人皆不欲 執平 強驅納之 人多逃散 入者十二三 糧儲乏少 執平 分遣別抄 請粟於朝 催運他道”).

입보로 전환해 나갔다. 이것은 일시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거점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진행되다가 전면화되는 과정을 밟았다. 이는 해도가 이동의 어려움이 큰 반면 식수와 식량의 확보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피해가 커지면서 몽고군에 맞서는 전술로서 해도 입보의 비중도 커졌다.

초기의 해도 입보는 주로 북계 주진을 중심으로 그 사례가 나타난다. 하지만 정부가 강화도로 천도하고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면서 남도지역에서도 해도 입보가 진행되었다. 위에서 島內 및 沿海의 토지를 지급하도록 한 사례들은 내용상 남도 지역으로 파악된다. 그러한 조건을 갖춘 섬이 남도지역에 주로 분포하기 때문이다. 다음 장부터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도 군현의 해도 입보를 계수관 단위로 구체적인 상황을 추출하고, 이를 지방행정 및 군사운영체제와 연계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3. 南京·廣州의 江華 入保와 忠州·淸州의 해도 입보

고려의 해도입보책은 처음에 北界 州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지만, 점차 남도 지역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되었다. 특히 고종 22년(1235)에 시작된 몽고의 3차 침입은 여러 해에 걸쳐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 경주의 황룡사구층탑이 불타는 등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남도 지역에도 해도 입보가 적극적으로 모색되었다.

남도지역에서 해도 입보가 처음 확인되는 것은 南京과 廣州牧이다. 몽고의 3차 침입에 대한 첫 보고가 올라오자³⁶⁾ 남경과 광주목을 강화도에 흡수케 하는 조치가 내려졌다.³⁷⁾ 남경과 광주목은 한강을 끼고 있는 두

36) 『高麗史』 권23, 고종 22년 윤7월 丙子

37) 『高麗史』 권23, 고종 22년 윤7월 壬午 “命前後左右軍陣主知兵馬事 沿江防戍 又令廣州南京 入保江華”

界首官으로서 강화도와 직접 연결되는 위치에 있었다. 이들은 강화도의 인적 기반 강화를 위해 함께 입보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界首官을 단위로 입보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차적으로 계수관 정도의 대응이 입보를 진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계수관이 지방행정 및 군사운영체계의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입보가 장기 항전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계수관의 입보는 군사 거점의 확보라는 의미가 컸다.

고려는 일차적으로 수령이 파견된 고을을 중심으로 軍事道가 편성되었으나 실제 군사작전에서는 그보다 큰 규모가 요구되어 界首官을 단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계수관 단위로 편성된 군대를 ‘界軍’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하는데³⁸⁾, 고종 4년(1217) 契丹遺種의 침입 때 전라도의 계수관인 全州와 羅州의 界軍이 동원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全州的 軍馬가 먼저 출발했다가 5일 만에 돌아와 作亂하였고, 이로 인해 羅界軍도 출발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³⁹⁾ 羅界軍이란 계수관 나주 관할로 편성된 군대로서 全州的 軍馬 역시 같은 의미를 가진다.

계수관의 해도 입보는 界軍 운용이 이곳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임을 짐작케 한다. 다음 기사는 이러한 구도에서 이해할 수 있다.

忠州道巡問使 韓就가 牙州의 海島에 있으면서 배 9척으로 몽고군을 치려고 했으나 몽고군이 되받아쳐 모두 죽였다.⁴⁰⁾

38) 윤경진, 앞의 논문, 2004.

39) 『高麗史』 권22, 고종 4년 정월 庚寅 “全羅抄軍別監洪溥 馳報 全州軍馬 年前十二月二十六日 催發 行五日 而還州作亂 殺逐長吏 因留住 由是 羅界軍 亦不發”

40)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4월 庚寅 “忠州道巡問使韓就 在牙州海島 以船九艘 欲擊蒙兵 蒙兵逆擊 盡殺之” 이 구문의 해석에는 논란이 있다. 巡問使 韓就는 원종 4년 大司成으로 몽고에 사신으로 간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高麗史』 권25, 원종 4년 10월 壬戌 “遣大司成韓就 如蒙古 賀正 兼謝賜羊”). 이 때문에 “盡殺之”를 고려군이 반격하는 몽병을 몰살시킨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강재광, 앞의 논문, 2008, 54쪽). 그러나 문맥상 “盡殺之”는 몽병이 고려군을 몰살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윤용혁, 앞의 논문, 1982, 79쪽). 고려군이 몽병을 공격하고자 했다가 반격을 받았다는 흐름이기 때문에 주어를 바꾸어 이해할 수 없다. 이 구문은 한취가 牙州 海島에 남아 있으면서 9척의 배를 보내 몽병을 공격하려고 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취가 직접 인솔해 나왔다면 ‘以’는 ‘率’로

위의 기사는 고종 43년(1256) 4월 해도에 있던 忠州道巡問使가 군대를 보내 몽고군을 공격하려다가 도리어 몰살당한 내용을 적고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사실에 주목할 수 있다.

우선 忠州道巡問使의 직함이다. 고려전기 이래 각종 사신은 대개 계수관을 매개로 설정되는 ‘州道’를 대상으로 파견되었다.⁴¹⁾ 주도는 통상 2개의 계수관을 묶어 편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3개 이상을 연결하거나 1개 계수관만으로 구성되기도 하였다. 忠州道는 계수관 충주를 단위로 설정되며, 巡問使는 군사적 지휘권을 가진 사신이다. 결국 忠州道巡問使는 계수관 충주 관내를 대상으로 편성된 界軍을 지휘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당시 충주도순문사는 牙州 海島에 주둔하고 있다가 배를 보내 공격을 단행하였다. 이것은 충주목이 해도에 입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충주목 관내의 모든 주민이 입보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해도 입보는 장기 항전의 거점을 확보하는 데 본령이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력의 입보이다. 여기에 행정기구와 일부 주민의 입보가 병행될 수 있는데, 충주의 경우 행정기구까지 입보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북계 주진과 달리 남도는 해도 입보가 진행되었다고 하여 本城을 완전히 비울 수는 없었다. 실제로는 다수의 주민과 일부 군사력이 현지에 남아 산성에 입보하는 형태로 분산 운영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위의 기사에 이어지는 다음 내용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몽고군이 忠州로 들어와 州城을 도륙하고 또 山城을 공격하니 官吏와 老弱은 저항할 수 없을까 두려워하여 月嶽神祠로 올라갔는데, 홀연히 雲霧가 끼고 비바람과 우박이 함께 일어났다. 몽고군이 신령의 도움이라 여기고 공격하지 않고 물러갔다.⁴²⁾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41) 윤경진, 「고려전기 道の 다원적 편성과 5道の 성립」, 『東方學志』 135, 2006.

42)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4월 庚寅 “蒙兵入忠州 屠州城 又攻山城 官吏老弱 恐不能拒 登月嶽神祠 忽雲霧 風雨雨雹俱作 蒙兵以爲神助 不攻而退”

앞서 忠州道巡問使가 보낸 군대를 섬멸한 몽고군은 충주를 공격하였다. 먼저 州城을 도륙한 뒤 山城까지 공격하다가 물러갔다. 충주의 州城은 곧 읍치에 있는 성이며, 山城은 그 배후에 입보처로 마련된 곳이다.

이곳에는 관리와 노약자 정도만 있고 실질적인 군사력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충주산성에 군사력이 없이 관리와 노약자만 남아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군사적 방어가 무너지면서 피난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극적인 몽고군의 퇴각을 나타낸 것일 뿐, 적정한 군사력이 남아 州城 및 山城 방어에 임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곧 충주 관할의 군사력 중 일부는 해도에 입보하여 전투에 대비하였고, 일부는 충주산성에 남아 방어에 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에서 해도에 입보한 군사력은 필요한 경우 육지로 나와 몽고군을 기습하는 ‘공격’을 담당하였고, 산성에 남은 군사력은 성을 지키는 ‘방어’에 주 기능이 있었다. 몽고군이 충주 방면으로 향하자 해도에 있던 忠州道巡問使가 군대를 보내 육지로 나와 이를 공격하도록 한 것에서 전자의 운영 원리를 읽을 수 있다. 물론 산성에 있는 군사력 또한 방어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일부 군사력을 보내 몽고군을 기습하는 형태의 전술도 구사하였다.

충주는 경상도 방면으로 넘어가는 교두보였던 탓에 산성의 전략적 중요성이 컸으며, 몽고군의 집중적인 공격도 여러 차례 겪었다. 고종 40년(1253) 12월 也窟의 침입 때 몽고군이 충주를 포위 공격하자 防護別監 金允侯의 분전으로 이를 막아내기도 하였다.⁴³⁾ 防護別監의 존재로 보아 당시 충주산성 입보를 통해 방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에도 몽고군의 충주 공격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① 車羅大가 忠州山城을 공격하는데 風雨가 사납게 일어나니 성안의

43) 『高麗史節要』 권17, 고종 40년 12월 “忠州報 蒙兵解圍 時被圍凡七十餘日 兵食幾盡 防護別監 金允侯 論厲士衆曰 若能效力 無貴賤悉除官爵 焚官奴簿籍 以示信 又分給所獲牛馬 人皆效死 蒙兵稍挫 遂不復南”

사람들이 정예를 뽑아 공격하니 적이 포위를 풀고 마침내 남쪽으로 내려갔다.⁴⁴⁾

- ② 몽고군이 大院嶺을 넘으니 충주에서 정예를 보내 천여 명을 쳐서 죽였다.⁴⁵⁾

①은 고종 41년(1254) 車羅大가 忠州山城을 공격한 상황을 담고 있으며, ②는 이듬해 충주에서 상주로 넘어가는 大院嶺에서 충주가 몽고군을 공격하여 전과를 거둔 내용을 적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둘 다 정예군이 공격을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당시 충주산성에 방어를 위한 군사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었으며, 상황에 따라 소수의 정예병이 출격하여 기습 공격을 구사했던 것이다.⁴⁶⁾

이것을 고종 43년(1256) 아주 해도의 입보 상황과 연결해 보면, 당시 충주 방면은 山城과 海島로 이원화된 방어체계를 구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내륙의 산성에 국한하여 군사력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군사를 나누어 일부는 해도로 들어가 군사력을 보존하면서 필요에 따라 출륙하여 공격을 수행하고, 일부는 주요 거점 산성을 방어하는데 주력했다는 것이다. 정예병의 출격도 이러한 기반에서 구사되는 것이다.

고종 40년(1253) 몽고군의 재침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남도의 산성 및 해도 입보 조치는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北界兵馬使가 “몽고군이 이미 鴨綠江을 건넜습니다”라고 보고하니 바로 五道按察 및 三道巡問使에게 移牒하여 주민을 다그쳐 山城과 海島에 입보하도록 하였다.⁴⁷⁾

44) 『高麗史』 권24, 고종 41년 9월 癸丑 “車羅大攻忠州山城 風雨暴作 城中人 抽精銳 奮擊之 敵解圍 遂南下”

45) 『高麗史』 권24, 고종 42년 10월 乙丑 “蒙兵踰大院嶺 忠州出精銳 擊殺千餘人”

46) 고종 45년에는 忠州의 別抄가 朴達峴에 매복했다가 몽고군을 공격하여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高麗史』 권24, 고종 45년 10월 “是月 忠州別抄 設伏朴達峴 狙擊蒙兵 奪所擄人物 牛馬兵仗”).

47) 『高麗史』 권24, 고종 40년 7월 甲申 “北界兵馬使報 蒙兵渡鴨綠江 卽移牒五道按察及三道巡問使 督領居民 入保山城海島”

위의 기사에서 五道按察使와 三道巡問使에게 移牒되는 것은 이 조치가 남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⁴⁸⁾ 五道按察使는 통상적인 행정체계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주로 산성 입보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한 반면, 三道巡問使는 전술한 忠州道巡問使와 牙州 海島 입보를 감안할 때 주로 해도 입보와 관련된 임무를 나누어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순문사가 산성 입보를 이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것이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수립된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존에 산성 입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방어전략에서 해도 입보의 도입은 ‘대체’보다는 ‘병행’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북계 주진은 행정단위의 이동까지 수반한 만큼 전략이 대체되는 성향이 크지만⁴⁹⁾, 남도지역은 당초부터 그러한 구도가 성립하기 어려웠다. 강화 천도에 수반하여 산성 및 해도 입보가 시달될 때부터 남도의 입보는 두 곳에서 병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고종 23년(1236) 6월 義州江(압록강)을 건넌 몽고군은 빠르게 진격하며 남도지역까지 공격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고려는 諸道에 山城防護別監을 파견하였다.⁵⁰⁾ 이 당시까지 산성 입보가 일반적인 상황이었던 것이다. 남도지역은 기존의 생활 기반 등으로 인해 해도 입보를 고려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2년 뒤 몽고군은 東京까지 침구하여 황룡사구충탑을 불태

48) 三道巡問使는 고종 30년 慶尙州道, 全羅州道, 忠淸州道에 각각 파견된 巡問使를 가리킨다(『高麗史』 권23, 고종 30년 2월 戊辰). 이때 파견된 忠淸州道巡問使와 고종 43년의 忠州道巡問使를 동일시할 수도 있으나 道の 편성 원리로 볼 때 관할 범위의 차이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통상적으로 사신의 활동은 단기간에 그친다는 점과 두 기사의 시차가 3년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忠州道巡問使는 忠淸州道巡問使와 동일 직임이 아니라 기능이 분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9) 州鎭이 밀집되어 있던 北界에서 간선로의 주진이 먼저 海島에 입보하고 내륙 주진은 山城에 남아 있던 것은 결국 산성과 해도 입보를 병행하는 전략을 담게 된다. 하지만 고종 35년 내륙 주진들도 해도에 입보함으로써 북계 주진의 방어 전략은 해도 입보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50) 『高麗史』 권23, 고종 23년 6월 丁酉 “分遣諸道山城防護別監”

있다.⁵¹⁾ 몽고군은 이듬해 정월 철군했지만, 4년에 걸친 공격으로 고려는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고려 정부는 강화도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外城을 쌓았다.⁵²⁾ 이러한 상황에서 남도지역 및 내륙 방면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해도 입보를 도모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후 몽고의 침입은 한동안 잦아들었다가 고종 34년(1247)에 재개되었는데⁵³⁾, 이듬해 북계 주진에 대해 전면적으로 해도 입보를 단행하게 되었다. 이때의 입보 조치는 몽고의 재침에 대응하여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곧 앞서 수년에 걸쳐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할 때, 해도 입보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한 준비도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실제 침입이 재개되자 북계 주진이 대대적으로 해도 입보를 단행하였다. 마찬가지로 남도 지역의 경우에도 해도 입보를 기획한 상황에서 고종 40년(1253) 이를 전면화한 것이다.

그렇다면 충주목이 입보한 아주 해도는 구체적으로 어디일까. 현 아산만 안쪽에는 입보할 만한 섬이 없다. 따라서 실제 입보한 곳은 이보다 먼 외곽에서 찾아야 하는데, 아주를 통해 출입했기 때문에 “牙州海島”로 지칭한 것이 아닌가 한다. 실상 충주에서 바다로 나가려면 남한강을 타고 내려가거나 아주 방면으로 나오는 길밖에 없다.

이때 충주목이 입보한 아주 해도의 실체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산만에 인접한 大府島(大部島)이다.⁵⁴⁾ 『高麗史』地理志에 대부도는 唐城郡 소속으로 나오며,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南陽都護府(唐城郡) 서쪽 53리에 있다고 되어 있다.

당시 대부도 입보와 관련하여 다음 기사가 주목된다.

51) 『高麗史』 권23, 고종 25년 4월 “蒙兵至東京 燒黃龍寺塔”

52) 『高麗史』 권23, 고종 24년 “是歲 築江華外城”

53) 『高麗史』 권23, 고종 34년 7월 “蒙古元帥阿母侃 領兵 來屯塩州”

54) 강재광은 牙州 海島의 실체를 아산만 외곽에 있는 난지도 등으로 추정했으나(강재광, 앞의 논문, 2008, 54쪽), 이들 섬은 규모가 작아 계수관 단위의 입보처로 활용될 여지가 적다. 멀지 않은 곳에 대부도가 있었던 만큼 이곳이 입보처로 활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大府島 別抄가 밤에 仁州 지경의 蘇來山 아래에 나와 몽고군 100여 인을 쳐서 쫓아냈다.⁵⁵⁾

위 기사는 고종 43년(1256) 4월의 기사로서 대부도에 있던 別抄가 仁州 방면에 상륙하여 몽고군을 공격한 내용을 담고 있다.⁵⁶⁾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남도지역의 해도 입보 과정에는 夜別抄가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들은 입보 후 군대 운용과 전투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했을 것인데, 위 기사는 그러한 활동의 일단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부도에는 일정한 행정단위가 입보했을 것인데, 이것이 충주목일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적했듯이 남도의 해도 입보는 대개 계수관을 단위로 이루어졌는데, 양광도 방면의 계수관 중 남경과 광주목은 강화도에 흡수한 상태였다. 대부도 별초의 활동은 충주도순문사가 군대를 보내 몽고군을 공격하려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충주목이 대부도에 입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忠州牧과 더불어 인근 계수관인 淸州牧의 해도 입보도 확인된다. 곧 고종 43년(1256) 8월 將軍 宋吉儒를 보내 淸州民을 해도로 옮긴 것이다.⁵⁷⁾ 그런데 충주목의 사례를 고려할 때 청주목도 군대 일부는 이미 입보한 상태였으며, 위의 조치는 남은 주민을 추가로 입보케 한 것으로 해석된다.

『高麗史節要』에는 당시 입보와 관련하여 좀더 자세한 설명이 실려 있다.

將軍 宋吉儒를 보내 淸州의 주민을 海島로 옮겼다. 吉儒는 백성들이 재물을 아껴 옮기는 것을 어렵게 여길까 우려하여公私의 재물을 모두 불태우게 하였다. 이에 앞서 崔沆이 諸道에 사신을 보내 주민을 모두

55)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4월 庚辰 “大府島別抄 夜出仁州境蘇來山下 擊走蒙兵百餘人”

56) 원종 12년 몽고군의 침탈에 시달린 大部島 주민이 반란을 일으킨 일이 있었다(『高麗史』 권27, 원종 12년 2월 辛丑). 狹梁을 방수하던 몽고군이 대부도에 진입하여 주민을 침탈했기 때문인데, 이는 앞서 입보가 이루어져 항전의 거점이 되었던 대부도에서 그 기반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이해된다.

57)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8월 庚辰 “遣將軍宋吉儒 徙淸州民于海島”

島內에 몰아넣게 하였으며, 따르지 않는 자는 그 집과 錢穀을 불태우니 굶어 죽는 자가 열에 여덟 아홉이었다.⁵⁸⁾

위의 기사를 통해 고종 43년(1256) 청주목 방면에서 진행된 해도 입보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조치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본거지를 모두 불태우는 淸野 전술을 수반하였다. 이것은 충주가 공격을 받아 함락될 지경에 이르렀던 상황에서 다시 청주까지 피해를 받을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당시 청주목이 입보한 해도가 어디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앞서 충주목이 입보한 牙州 海島, 곧 대부도에 함께 입보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충주도순문사가 군대를 지휘하는 것은 충주와 청주의 군사력이 따로 운용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입보 해도도 달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리적으로 보아 청주목은 아주 방면보다는 남쪽의 해도로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경우 태안반도 남쪽의 섬, 곧 현재의 안면도 정도로 비정해 볼 수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단순한 추정을 넘어서기는 어렵지만, 딱히 다른 해도를 상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청주목 방면에서 해도 입보와 더불어 산성 입보를 통한 방어가 병행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諸道の 郡縣으로 山城과 海島에 입보한 자는 모두 出陸하게 하였다. 당시 公山城에 舍入한 郡縣들은 양식이 떨어지고 길이 먼 자는 굶어 죽는 경우가 많았고 노약자는 골짜기에 굴러 떨어졌으며, 아이를 나무에 매어 놓고 가버리는 일까지 있었다.⁵⁹⁾

위의 기사는 고종 42년(1255)의 것으로서 앞서 산성과 해도에 입보한 군현을 다시 나오게 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물론 항구적인 입보책의

58) 『高麗史節要』 권17, 고종 43년 8월 “遣將軍宋吉儒 徙淸州民于海島 吉儒慮民愛財重遷 悉焚公私財物 先是崔沆 遣使諸道 盡驅居民入島內 不從者火其廬舍錢穀 餓死者十八九”

59) 『高麗史』 권24, 고종 42년 3월 丙午 “諸道郡縣 入保山城海島者 悉令出陸 時 公山城舍入 郡縣 糧盡道遠者 飢死甚衆 老弱填壑 至有繫兒於樹而去者”

포기가 아니라 여건 악화에 따른 일시적 조치로 해석된다.

그런데 당시 입보 상황의 악화를 보여주는 예로 公山城이 언급되고 있다. 이곳에는 여러 군현이 흡수되어 있었는데, 공주는 청주목 관내이다. 당시 청주 관내 군사력이 청주와 공주로 나누어 인근 산성에 입보한 것인지, 아니면 공산성에 집중 입보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공주에 여러 군현이 흡수하고 있다는 점과 공주가 개경에서 전라도 방면으로 내려가는 요충이 된다는 점, 그리고 본거지와 멀리 떨어진 주민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주목 주력군의 해도 입보와 더불어 공산성 입보도 병행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⁶⁰⁾

몽고군은 경상도 방면으로 진출할 때 충주산성을 통과해야 하는 것처럼, 전라도 방면으로 향할 경우 공산성을 거쳐야 했다. 이런 구도에 대응하여 충주목의 군사는 충주산성에, 청주목의 군사는 공산성에 각각 입보하여 방어에 나섰고, 한편으로 각기 해도에 나누어 입보하여 군사력을 보존하고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양광도 방면의 해도 입보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도의 해도 입보는 계수관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지방군의 운용과 연결되어 있었다. 남경과 광주목은 전쟁초기에 강화도에 합입하였고, 충주목과 청주목 역시 해도에 입보하였다. 입보처는 확인되지 않으나 관련 정황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각각 대부도와 안면도로 추정할 수 있다. 당시 해도 입보는 기존의 산성 입보와 병행되어 적절한 공격과 방어의 효과를 함께 도모하는 것이었다.

60) 해도 입보와 산성 입보의 병행은 界首官을 중심으로 편성되는 주력군의 경우를 고려한 것으로, 계수관 단위에서 한곳에만 산성 입보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산성에 입보가 이루어졌겠지만, 요충지에는 계수관이 이끄는 주력군이 우선적으로 입보했을 것이다. 이곳은 반드시 계수관 인군이 아닐 수 있다. 청주목 주민의 개별적 입보처라면 인근의 상당산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계수관 단위 군사력의 활동을 감안할 때 요충을 지키는 데 초점이 있었다고 보면 공산성 입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4. 全州의 槽島 · 押海島 입보와 羅州의 珍島 입보

전라도 방면에서 이루어진 해도 입보 사례로는 槽島가 주목된다. 고종 42년(1255) 12월 몽고군이 배를 만들어 槽島를 공격했으나 실패한 일이 있었다.⁶¹⁾ 이듬해 정월 몽고군이 여러 섬을 공격하려 한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정부는 將軍 李廣과 宋君斐로 하여금 舟師를 거느리고 南下하여 방어하도록 했다.⁶²⁾ 이들은 靈光으로 가서 군대를 나누어 공격하려 했으나 몽고군이 미리 알고 대비를 갖추자 이광은 도로 섬으로 들어가고 송군비는 笠巖山城을 지켰다.⁶³⁾

이광이 어느 섬으로 들어갔는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당시 군대의 파견은 앞서 槽島에 대한 공격이 빌미가 되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조도 외에 섬을 공격한 기사가 없고, 조도 공격은 몽고군이 직접 배를 만들어 도모한 것이었다. 몽고가 諸島 공격을 도모했다는 기사내용은 조도 공격과 직접 연결된다.

따라서 조도는 전라도 방면에 있었으며 당시 군사 운영의 거점이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조도의 위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이광 등이 영광으로 내려온 것을 통해 영광 서부 연안의 섬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지역에는 많은 도서가 있고 개중에는 臨淄縣 등 군현이 설치된 곳도 있었다. 조도 역시 이 지역에 소재한 섬으로서 비교적 규모가 크고 연안에 인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智島 일원에 비정할 수 있다.⁶⁴⁾

61) 『高麗史』 권24, 고종 42년 12월 壬辰 “蒙兵造船 攻槽島 不克”

62)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정월 丁巳 “王聞蒙古兵 謀攻諸島 遣將軍李廣 宋君斐 領舟師三百 南下禦之”

63)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3월 己未 “李廣 宋君斐 趣靈光 約分道擊之 蒙兵知而有備 廣還入島 君斐保笠巖山城 城中強壯 悉投於敵 唯老幼在 一日 君斐佯出羸弱數人於城外 以示之 蒙兵以爲糧盡 引兵至城下 君斐率精銳 奮擊敗之 殺傷甚多 擒官人四”

64) 槽島는 다른 문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 비정은 불가능하다. 강재광은 발음의 유사성을 근거로 조도를 豊州의 椒島로 비정하였으나(강재광, 앞의 논문, 2008, 42쪽) 같은 이름의 섬이 서로 다른 지역에도 출현하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 몽고군의 조도 공격은

한편 송군비가 들어간 笠巖山城은 長城에 있는데, 성을 지키던 強壯은 모두 적에게 투항하고 노약자만 남아 있었다. 송군비는 성이 허약한 상황을 보여주며 적을 유인한 뒤 인솔해 간 정예병을 출격시켜 격멸하였다. 여기서 당시 전라도 영광 및 장성 방면에서는 조도와 입암산성으로 나누어 입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충주산성과 牙州海島(대부도)에 나누어 입보했던 충주목의 상황과 유사하다.

입암산성의 경우 장정들이 적에 투항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 장정이 투항한 상태에서 노약자가 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송군비의 활동을 극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이곳 역시 충주산성처럼 주력부대가 해도로 입보하였고, 이로 인해 성의 방어력이 약화된 상황이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槽島에 입보한 행정단위는 어디였을까. 직접 파악하기는 곤란하지만, 몽고가 가장 먼저 공격을 가하고 고려 정부가 지원군을 보낸 것을 보면 거점 군현, 곧 계수관의 입보를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후술 하듯이 나주지역은 배후에 양호한 입보처를 다수 가지고 있었음에 비추어 조도에는 全州牧 중심으로 입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한다.

전라도 방면의 군사 운용을 보면, 통상 全州와 羅州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전술한 고종 초 契丹遺種 침입 때 全州 軍馬와 羅界軍의 동향은 그 예인데, 몽고의 침입 때에도 같은 형태의 군사 운용을 예상할 수 있다.

당시 전주의 군사력은 남하하여 일차적으로 요새인 입암산성에 입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입암산성은 長城과 井邑 경계에 있다. 전주 방면에서 입보하기에 무리가 없고, 관할 知郡인 古阜郡 및 南原府의 입보도 가능한 곳이다. 계수관 전주의 군사력이 집결할 수 있는 중심지였다는 점에서 전주목의 입보를 유추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 이는 청주목이 公山城에 입보했다는 추정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광과 송군비의 파견과 관련되므로 일단 영광 방면으로 파악할 수 있고, 입보가 가능한 충분한 규모의 섬으로서 智島로 비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초기의 산성 입보에 해도 입보가 병행되면서 전주목의 군대가 영암 방면의 조도로 나누어 들어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입암산성의 방어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는 전술한 충주산성의 상황과 동일하다. 이처럼 입보처가 입암산성과 조도로 이원화된 상황에 맞추어 정부군도 두 곳으로 나누어 들어가게 되었다.⁶⁵⁾

한편 남도지역 전반에 해도 입보가 진행되면서 몽고군도 해도 공격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⁶⁶⁾ 고종 41년(1254) 3월 몽고의 兵船 7척이 葛島를 공격하여 30호를 잡아갔다는 보고가 올라왔다.⁶⁷⁾ 고종 43년(1256)에는 몽고군이 艾島를 공격하자 別抄가 잡아죽인 일도 있었다.⁶⁸⁾ 갈도와 애도는 모두 북계에 있던 섬으로 확인된다.⁶⁹⁾ 고종 44년(1257) 9월에는 안북대도호부가 입보해 있던 昌麟島가 몽고군의 공격을 받았다.⁷⁰⁾

그런데 전라도 방면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당시 몽고군이 槽島 외에 押海島를 공격한 사실이 확인된다.

車羅大가 일찍이 舟師 70척을 거느리고 깃발을 성대히 벌여놓고 押海를 공격하려는데, 저와 한 官人으로 하여금 別船을 타고 전투를 독려하게 하였습니다. 押海人이 大艦에 두 砲를 설치하고 기다리니 양측 군대가 대치만 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⁷¹⁾

위의 기사는 『고려사절요』에 고종 43년(1256) 6월의 일로 정리되어

65) 全州牧이 입암산성이나 조도에 입보하기에 거리가 멀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하지만 내륙의 충주목이 아주 해도까지 들어가는 상황이나 입보를 위해서는 남해안까지 내려와야 하는 東京의 상황을 고려하면 전주목의 이동은 그렇게 곤란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66) 몽고군의 해도 공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윤용혁, 앞의 논문, 1982 참조.

67) 『高麗史』 권24, 고종 41년 3월 己未 “北界兵馬使報 蒙古兵船七艘 侵葛島 虜三十戶”

68)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10월 己巳 “蒙兵六十人 寇艾島 別抄盡擒斬之”

69) 『高麗史』 권24, 고종 46년 3월 丙子 “北界艾葛二島合入各驛人 殺京別抄七人 投蒙古”

70) 『高麗史』 권24, 고종 44년 9월 己巳 “西海道按察使報 蒙兵六船 侵昌麟島 瓮津縣令李壽松 率別抄 擊却之 加壽松七品”

71) 『高麗史』 권130, 列傳43 叛逆4 韓洪甫 “車羅大嘗將舟師七十艘 盛陳旗幟 欲攻押海 使吾與一官人 乘別船督戰 押海人置二砲於大艦待之 兩軍相持未戰”

있는데⁷²⁾, 몽고군의 포로가 되어 활동하던 尹椿이 돌아와 崔沆에게 해도 입보의 장점을 설명하는 중에 押海島의 사례를 말한 것이다. 車羅大의 공격 당시 압해의 주민들은 大艦에 포를 설치하면서 항전을 준비하였고, 車羅大는 쉽게 공격하지 못했다. 이에 배를 옮겨가며 공격하려 했으나 압해민이 이에 대응하여 포를 준비하자 결국 공격을 포기하였다.

위 기사는 윤춘이 최항에게 보고한 것이므로 실제 車羅大의 압해도 공격은 이보다 앞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 車羅大는 이해 4월 당시 潭陽에 주둔하고 있었고⁷³⁾, 윤춘의 보고 당시에는 海陽縣(光州)의 무등산에 주둔하면서 남쪽으로 공격을 도모하고 있었다.⁷⁴⁾

전술한 바와 같이 고종 42년(1255) 12월에 몽고군의 槽島 공격이 있었고, 이듬해 정월 이광과 송군비가 파견되어 방어에 나섰다. 이광은 다시 섬(조도로 추정)으로 들어갔고 송군비는 입암산성으로 들어가 방어에 나섰다. 이러한 전황에 비추어 몽고군의 압해도 공격은 조도 공격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광 등의 파견은 몽고군이 諸島 공격을 도모하는 데 대한 대응이었는데, 조도와 압해도 공격은 당시 몽고군이 도모한 諸島 공격의 하나였던 것이다.

그런데 압해도의 대치 상황을 보면, 도서 군현인 압해현의 본래 주민만으로 구사될 수 있는 전술로 보기 어렵다. 大艦의 존재, 몽고 병선의 이동에 대응하는 砲의 비치 등은 전투력을 가진 군사 입보에 의해 확보된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 연안에 인접하고 군현이 설치된 압해도는 유효한 입보처였다.

그렇다면 압해도에 입보한 행정단위는 어디일까. 이에 대해서는 일단 관할 계수관인 羅州牧의 입보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면에서는 충주목이나 전주목처럼 단순한 구도로 입보처를 추정하기 어렵다. 다른 지역과 달리 나주 관내에는 입보할 수 있는 섬이 많기 때문이다. 押海縣

72) 『高麗史節要』 권17, 고종 43년 6월

73) 『高麗史節要』 권16, 고종 43년 4월 “時車羅大永寧公 屯潭陽 洪福源屯海陽”

74)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6월 “是月 車羅大屯海陽無等山頂 遣兵一千南掠”

외에도 臨淄縣과 長山縣, 陸昌縣 등 도서 군현이 다수 있었고, 더 남쪽에 珍島도 있었다.

현실적으로 나주가 입보할 해도로는 압해도보다 진도가 여러 모로 우월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다. 방어체계의 측면에서 해도 입보 후에도 육지의 군사 거점과의 연계성이 중요하다는 점과 관할 知郡인 靈岩과 寶城의 입보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주가 진도에 입보했을 가능성이 높다. 진도는 섬 안에 3개 군현이 설치될 정도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고, 진도현은 현령관으로 안정된 행정 기반도 확보되어 있었다. 입보 여건이 다른 섬에 비해 월등했던 것이다. 뒤에 삼별초가 입보하여 대몽항전을 이어간 것도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압해도에는 전주목 관할 군사력이 분산 입보했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적했듯이 전라도 서남부지역에는 많은 도서가 분포하고 있다. 고려 정부는 몽고의 해도 공격에 맞서 이러한 연안 도서의 방어에도 신경을 써야 했다. 연안의 섬이 함락되면 이곳을 발판으로 다른 입보처에 대한 공격이 강화될 것이며, 그럴 경우 고려의 해도입보책도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⁷⁵⁾

따라서 전라도 서남 연안에는 군사력의 보존뿐만 아니라 주요 도서 자체의 수비라는 측면에서도 입보가 요구되었다. 이에 맞추어 내륙 군사력의 입보도 특정 도서에 집중되기보다는 직접 공격대상이 될 수 있는 연안의 주요 도서에 분산 배치될 필요가 있었다. 조도 공격에 대해 정부가 군대를 보낸 것도 이 때문이며, 전주목이 영광 방면의 도서로 내려와 입보한 것도 도서 방어의 필요성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영광 방면의 연안 도서에는 전주목이 입보하여 군사력을 보존하는 한편 몽고의 해도 공격에도 대비하고 있었다. 압해도의 사례는 이러한 방어책이 효과를 거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전라도의

75) 물론 羅州牧의 군사력이 분산 입보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나주가 최후 방어선이 되고 있고 배후의 입보처인 珍島의 규모가 크다는 점과 전주목이 입보하게 되는 서해안 도서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주목의 분산 입보를 생각하는 쪽이 좀더 합리적이다.

또 다른 계수관인 羅州牧의 입보는 전술한 것처럼 珍島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고종 43년(1256) 6월 당시 車羅大는 해양현 무등산까지 진입하여 남쪽 방향으로 공략을 도모하였다. 당시 車羅大와 협상을 위해 활동하던 慎執平이 羅州로부터 돌아와 보고한 것을 보면⁷⁶⁾, 해양현과 나주 사이에 전선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집평은 해로를 이용하여 나주로 들어가 車羅大의 진영에 갔고, 돌아올 때에도 이 경로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나주 방면의 입보 상황은 직접 드러나지 않지만, 뒤에 진행된 三別抄의 항쟁 과정을 통해 역으로 유추할 수 있다.

賊이 珍島로 들어가 웅거하며 州郡을 침략하는데 申思侏은 적을 토벌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중략) 羅州에 이르러 賊이 出陸했다는 소식을 듣고 개경으로 돌아갔다. 全州副使 李杉 역시 성을 버리고 도망가 모두 면직되었다. 金方慶이 思侏을 대신해 蒙古元帥 阿海와 함께 병사 1천을 거느리고 토벌하였다. 賊이 羅州를 포위하고 군사를 나누어 全州를 공격했다. 나주 사람들이 전주와 더불어 항복을 의논하는데 전주 사람들이 미적했다. 金方慶이 도중에 소식을 듣고 單騎로 서둘러 南行하여 먼저 전주에 공문을 보내기를 “某일에 군대를 이끌고 전주로 들어갈 것이니 속히 軍餉을 갖추고 맞이하라”라고 하였다. 전주에서 나주로 공문을 보내 알리니 적이 소식을 듣고 포위를 풀고 가버렸다.⁷⁷⁾

위 기사는 진도를 점거하고 있던 三別抄가 전라도 방면에 상륙하여 공격을 진행하던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金方慶은 도주한 申思侏을 대신해 追討使가 되어 삼별초를 토벌하게 되었다. 당시 삼별초는 나주를 포위

76)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5월 壬寅

77) 『高麗史』 권104, 列傳17 金方慶 “賊入據珍島 侵掠州郡 思侏不以討賊爲意 (중략) 至羅州 聞賊出陸 奔還于京 全州副使李杉 亦奔城逃 皆坐免 方慶代思侏 與蒙古元帥阿海 帥兵一千 討之 賊圍羅州 分兵攻全州 羅人與全議降 全人猶豫 方慶在道聞之 單騎併日南行 先牒全曰 某日當帥兵一萬入州 宜速備軍餉待之 全以牒示羅 賊聞之 遂解圍去”

공격하면서 군대를 나누어 全州도 공격하고자 하였다.

당시 삼별초가 전주와 나주를 공격한 것은 이들이 바로 界首官으로서 군사적 거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전주와 나주는 삼별초의 공격에 맞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계수관으로서 당시 군사력이 두 곳을 중심으로 편성 운영되었다.

한편 삼별초가 나주를 공격했을 때 나주의 司錄으로 재임하던 金應德은 領內 諸縣에 공문을 보내 錦城山에 入保하도록 하여 방어에 나섰다.⁷⁸⁾ 곧 계수관 관할에 있는 군현들을 나주에 집결시켜 군사력을 강화한 것이다. 이때 금성산 입보는 삼별초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을 방어할 군사력 중심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대몽항쟁기에도 이와 같은 원리의 대응체계를 설정할 수 있다. 곧 나주를 중심으로 군사력을 모아 대응하도록 했을 것이다. 일차적으로 산성 입보를 도모하였고, 錦城山城이 그 거점이 되었다. 그리고 해도 입보도 병행되었을 것인데, 그 대상으로서 적합한 곳이 珍島였다. 車羅大가 무등산에 주둔한 뒤 남쪽 방면으로 공격을 도모한 것은 나주와 진도로 이어지는 고려의 방어선을 추측케 한다. 금성산성과 진도의 연계성은 앞서 살펴본 충주목의 입보 사례나 입암산성과 조도의 연계성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강화도에서 봉기한 삼별초가 이곳을 떠나 새로 근거지를 삼은 곳이 바로 珍島였다. 이곳에 입보하여 수년에 걸쳐 항쟁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앞서 항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진도가 大島로서 많은 인구가 들어갈 수 있고, 서남해안을 경유하는 조운로를 장악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⁷⁹⁾ 이러한 이점은 앞서 몽고와 항쟁을 벌이는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성립한다. 남도지역의 해도 입보에서 진도는 나주목과 연계된 유효한 입보처였다.

78) 『高麗史』 권103, 列傳16 金應德 “應德聞其言 卽決意守城 旆州及領內諸縣 入保錦城山 樹棘爲柵 率勵士卒 賊至圍城攻之 士卒皆裹瘡死守 賊攻城七晝夜 竟不得拔”

79) 해도 입보와 연계된 해상 교통로에 대해서는 강제광, 앞의 논문, 2012 참조.

원종 12년(1271) 진도 함락 후 진행된 주민의 분간 작업을 통해 삼별초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입보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몽고 황제는 진도 함락과 함께 몽고군에 잡힌 사람 중 강화도에서 삼별초에 끌려온 사람에 대해서는 부모 처자가 서로 확인하여 예전대로 살도록 허락하였다. 그리고 賊人의 家屬이나 병사들에게 내려준 노비 외에 원래 진도에서 살던 백성 또한 가족이 모여 살 수 있게 하되 王京 부근으로 이주토록 하였다.

원종은 몽고 장수 忻都에게 삼별초에 억지로 끌려 다닌 사람들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혼도가 듣지 않았다. 고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몽고에 여러 차례 문서를 보냈다. 그런데 이 중 “다른 섬이나 다른 고을에서 진도에 들어왔다가 사로잡힌 자와 官軍으로 다른 섬이나 다른 고을에 있다가 驅捉된 자”⁸⁰⁾라는 내용이 보인다. 이들은 자칫 삼별초에 부응하여 반란에 가담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컸기 때문에 따로 적시하여 선별하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 “다른 섬이나 고을에서 진도로 들어왔다가 사로잡힌 자”가 주목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삼별초가 들어온 후 뒤따라 들어온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삼별초에 호응한 것이므로 같은 부류로 취급되었을 것이다. 억지로 끌려온 사람은 “官軍으로 다른 섬이나 다른 고을에 있다가 驅捉된 자”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고려 정부가 삼별초 무리와 구분하려 한 사람들은 대몽항쟁기에 미리 진도에 입보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강화도에서 끌려온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삼별초에 휩쓸린 부류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본거지가 되는 주변 군현이란 결국 진도와 가까운 연안의 군현을 말하는 것이며, 이들은 기본적으로 나주 관할에 속한다. 이를 통해 대몽항쟁기에 계수관 나주의 진도 입보가 진행되었고, 이에 군사와 주민 일부가 진도에 들어와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개 군현이 설치

80) 『高麗史』 권27, 원종 12년 8월 “或自別島他邑 入珍島而見獲者 或官軍 分往別島他邑而驅捉者”

되어 있던 진도의 규모에 비추어 다수의 주민이 입보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특히 나주가 최후 거점이 되었던 만큼 진도 입보는 다른 지역에 비해 대규모로 이루어졌고, 이것이 삼별초의 진도 항쟁에 토대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전라도 지역에서는 계수관인 전주와 나주를 중심으로 해도 입보가 이루어졌다. 입보와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지만, 전주는 笠巖山城과 槽島의 입보를 통해 그 가능성을 읽을 수 있고, 나주는 삼별초의 근거지가 된 珍島와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전주지역이 영광 방면으로 내려와 입보한 것은 이 방면에 소재한 다수의 도서지역의 방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최후 거점이 되는 나주는 배후의 큰 섬인 진도에 입보했는데, 이것이 후일 삼별초 항전의 토대가 되었다.

5. 東京의 해도 입보 시도와 晉州의 南海島 입보

경상도 지역은 몽고의 침입 경로에서 가장 먼 곳으로서 다른 지역과 달리 해도 입보의 구체적인 사례를 찾기 어렵다. 하지만 고종 40년(1253) 몽고군의 침입에 대응해 五道按察使 및 三道巡問使로 하여금 산성과 해도에 입보하도록 조치한 바 있어⁸¹⁾ 경상도 방면에도 입보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기사는 경상도 방면의 해도 입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의 근거를 제공한다.

高宗 때 崔沆에 아침하며 섬겨 夜別抄指諭가 되었다. (중략) 大將軍을 더하여 慶尙道水路防護別監이 되어 夜別抄를 거느리고 州縣을 순찰하며 백성을 다그쳐 海島에 입보하도록 하였다.⁸²⁾

81) 『高麗史』 권24, 고종 40년 7월 甲申

82) 『高麗史』 권122, 列傳35 酷吏 宋吉儒 “高宗時 詔事崔沆 爲夜別抄指諭 (중략) 加大將軍 爲

위의 기사는 宋吉儒 열전의 일부로서 최항 집권기에 경상도 방면에서 해도 입보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水路防護別監은 산성 입보를 주도한 山城防護別監과 대비해 볼 때 해도 입보를 독려하기 위해 파견된 관리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어지는 송길유의 활동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송길유는 고종 43년(1256) 8월에 將軍으로서 淸州의 주민을 해도로 옮긴 일이 있었다.⁸³⁾ 그리고 고종 45년(1258) 정월 大將軍이던 그는 楸子島에 유배되었다.⁸⁴⁾ 송길유는 최항에 이어 집권한 崔埴에 의해 숙청된 것으로서 그가 경상도수로방호별감으로 활동한 것은 최항이 사망하는 고종 44년(1257) 전후로 잡을 수 있다.

그런데 고종 45년(1258) 金俊의 정변으로 崔氏政權이 몰락하였고, 몽고와도 강화 분위기가 조성되어 太子(元宗)가 入朝하게 되었다. 따라서 최씨정권이 도모했던 해도 입보도 중단되거나 환원되었을 것이다. 고종 46년(1259) 이미 입보한 지역에 대해 出陸하여 耕種하도록 조치한 것은 해도 입보가 완화되는 상황을 보여준다.⁸⁵⁾

하지만 이는 정권 교체에 따른 일시적인 조치로서 해도 입보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강화 정부가 출륙하지 않는 한 해도 입보민의 出陸 耕種은 제한된 조치일 수밖에 없었다. 무신 정권은 강화도를 나와 개경으로 돌아가는 데 소극적이었으며, 해도 입보를 풀지 않고 항전을 이어가려는 뜻을 버리지 않았다. 이것은 항전의 중심이 되는 북계 주진의 입보가 유지되는 데서 확인된다.

고종 46년(1259) 西京과 黃州의 주민을 德積島로 옮긴 것은 그러한 단서를 보여준다.⁸⁶⁾ 이 조치는 이미 해도에 입보한 상황에서 다시 입보처를

慶尙道水路防護別監 率夜別抄 巡州縣 督民入保海島”

83)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8월 庚辰 “遣將軍宋吉儒 徙淸州民于海島”

84) 『高麗史』 권24, 고종 45년 정월 癸丑 “流大將軍宋吉儒于楸子島”

『고려사절요』에는 그를 추자도에 유배한 기사 중에 慶尙州道水路防護別監으로 활동한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

85) 『高麗史』 권79, 食貨2 農桑 고종 46년 3월 “令州縣守令 率避亂民 出陸耕種”

86) 『高麗史』 권24, 고종 46년 2월 “是月 徙西京黃州民于德積島”

黃州는 계수관으로서 서해도 방면에서도 계수관 단위의 해도 입보를 유추할 수 있다. 다만

옮긴 것이었다. 서경은 전쟁초기 楮島에 입보한 일이 있었고, 뒤이어 주민을 모두 해도로 옮겨 성이 텅 빈 상태였다. 黃州 역시 전쟁초기 인근의 鐵島에 입보한 일이 있어 이 당시에도 철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을 남쪽의 덕적도로 옮긴 것은 입보 해도가 몽고군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서경에는 몽고군이 주둔하여 古城을 수축하고 戰艦을 만들며 屯田까지 개설하는 등 장기간 머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⁸⁷⁾ 이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면 서경 등이 입보한 해도가 바로 공격 대상이 될 것임은 자명하였다. 이에 남쪽의 큰 섬으로 옮겨 입보를 유지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는 金俊 정권의 수립 후 出陸 耕種을 허락하면서 서도 근본적으로는 해도 입보를 통한 항전 지속의 분위기가 공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출륙 경중은 남도지역에 제한적으로 시행한 조치였던 것이다.

김준을 제거하고 집권한 林衍은 몽고와의 강화를 추진하던 원중에 맞서 다시 한 번 전면적인 해도 입보를 시도하였다.

林衍이 왕명을 거역하고자 夜別抄를 諸道에 보내 백성들을 다그쳐 諸島에 入居하도록 하였다. (중략) 林惟茂가 분노했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 諸道水路防護使와 山城別監을 나누어 보내 사람들을 모아 입보하여 왕명에 맞서도록 하였다. (중략) 임연이 보낸 야별초가 경상도에 이르러 백성들을 다그쳐 諸島에 입보하도록 하니 按察使 崔澗이 東京副留守 朱悅 및 判官 嚴守安과 함께 모의하여 야별초를 잡아 金州에 가두고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⁸⁸⁾

또 하나의 계수관인 海州의 해도 입보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해주는 고종 23년 北界에 속하는 서경 인근의 龍岡 등이 몽고군에게 함락된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高麗史』 권23, 고종 22년 8월 癸丑 “海州馳報 蒙兵陷龍岡咸從三登等城 執其守丞”). 해주는 서해도 남부 해안에 위치하여 바다를 통해 강화도와 직접 교신할 수 있었다. 이로 보아 해도에 입보하지 않고 강화도에 전황을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87) 『高麗史』 권24, 고종 46년 2월 庚子 “時 王萬戶率軍十領 修築西京古城 又造戰艦 開屯田爲久留計”

88) 『高麗史』 권130, 列傳43 叛逆4 林衍 “衍欲拒命 遣夜別抄于諸道 督民入居諸島 (중략) 惟茂忿怒 莫知所爲 分遣諸道水路防護使 及山城別監 聚保人民 以拒命 (중략) 衍所遣夜別抄 至慶

위의 기사에 보이듯이 임연은 해도 입보를 통해 몽고와 결탁한 원종에 맞서려고 하였고, 임연 사후 권력을 승계한 林惟茂 역시 이 정책을 이어갔다. 이것은 최항 집권 말기에 도모했던 전면적인 해도 입보를 재차 시도한 것이었다.

水路防護使는 해도 입보를, 山城別監은 산성 입보를 지휘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그 지휘 아래 입보 과정은 夜別抄가 맡았다. 앞서 수로방호별감으로 파견된 송길유 역시 야별초를 거느리고 주민의 해도 입보를 독려하였다. 이것은 후일 삼별초가 진도 등 해도를 근거로 대몽항쟁을 이어가게 되는 사정과 깊이 연관된다.

그런데 임연이 파견한 야별초는 경상도에 와서 해도 입보를 독려하다가 按察使 및 東京의 관리들에 의해 구금되었다. 이것은 해도 입보가 계수관 동경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현지 관리들이 이에 반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원종이 몽고와 강화를 결정한 상황에서 동경지역은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큰 해도 입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동경에서 해도 입보를 둘러싼 충돌이 발생한 것과 달리 서부의 晉州牧 지역에서는 이미 입보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진주목의 입보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으나 인접한 南海島와 관련하여 그 정황을 유추할 수 있다. 그 단서는 남해도가 진도와 더불어 삼별초의 근거지가 되었다는 점이다.

劉存奕이 南海縣에 웅거하면서 沿海를 노략하거나 賊이 耽羅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역시 80척의 배로 따라갔다.⁸⁹⁾

유존혁은 裴仲孫이 강화도에서 承化侯 溫을 받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大將軍으로 동조하여 承宣에 임용된 인물이다. 삼별초가 진도에 들어가

尙道 督民入保諸島 按察使崔澗 與東京副留守朱悅判官嚴守安 謀執夜別抄 囚金州 以待王還”

89) 『高麗史』 권130, 列傳43 叛逆4 裴仲孫 “存奕據南海縣 剽掠沿海 聞賊遁入耽羅 亦以八十餘艘從之”

항전을 이어갈 때 유존혁은 남해현에 응거하고 있었다.⁹⁰⁾

남해도가 진도와 더불어 삼별초의 근거지가 되었다는 것은 이에 앞서 진도와 같은 여건을 갖추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당시 해도 입보를 시달하는 기사에는 대개 夜別抄를 파견하여 백성들을 독려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別抄가 출륙하여 몽고군을 공격하는 기사도 여럿 찾아볼 수 있다. 곧 해도 입보가 이루어진 곳에는 야별초가 그 중심에 있었고, 따라서 삼별초의 항전에 호응했을 것이다. 진도가 삼별초의 근거지가 된 것처럼 남해도도 이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초기에 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남해도에 입보가 이루어졌다면 이곳에 들어간 행정단위는 계수관 旆州牧으로 볼 수 있다. 남해도는 진주목 관내이며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위치에 있다. 이는 羅州牧과 珍島의 관계와 동일한 맥락을 띤다.⁹¹⁾

흥미로운 것은 삼별초 항쟁 당시 남해도와 거제도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남해도가 삼별초의 근거지가 된 것과 달리 거제도는 삼별초의 공격을 받았다.⁹²⁾ 도서와 연안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던 삼별초가 아직 세력이 미치지 않던 거제도를 공격한 것이다. 이는 남해도와 달리 거제도 방면에는 입보와 관련된 직접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가 아닐까 한다. 송길유가 慶尙道水路防護別監으로 활동한 사례에 이어 임연의 해도 입보 조치에 동경의 동향이 부각되는 것도 이러한 사정과 관련된다.

이처럼 경상도 방면에서는 해도 입보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지만, 고종 말부터 전국적인 해도 입보가 시행된 만큼 경상도 방면에서도 일정하게 해도 입보가 이루어졌음은 분명하다.⁹³⁾ 후일 진도와 더불어

90) 남해도를 근거로 한 삼별초의 항쟁에 대해서는 배상현, 「三別抄의 南海 抗爭」, 『역사와경계』 57, 2005 참조.

91) 다만 현재로서는 진주목과 관련된 산성 입보의 내용을 추출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92) 『高麗史』 권27, 원종 13년 11월 戊寅 “三別抄寇巨濟縣 焚戰艦三艘 執縣令而去 賊船又來泊靈興島 橫行近境”

93) 경상도 동부지역은 몽고군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입보처에서 직접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가 드러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아울러 山城 入保 만으로도 방어가 가능했던 측면과 해도 입보에 어려움이 컸던 점 등도 생각할 수 있다.

남해도가 삼별초의 근거지가 된 것은 이미 해도 입보가 실행된 결과로서 그 대상은 인접한 진주목으로 파악된다. 반면 동경 방면은 원종 때 임연의 입보 지시에 강하게 반발하였고, 거제도도 삼별초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어 여전히 해도 입보가 실행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6. 맺음말

이상에서는 대몽항쟁기 開京 이남지역의 海島 入保 상황을 광역 운영 체계인 界首官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얻어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몽고와 1차 전쟁을 치른 후 강화 천도가 단행되면서 내륙 군현들은 山城이나 海島로 입보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北界 州鎭을 중심으로 해도 입보가 진행되었다. 이는 기존의 山城 入保로 대응이 어려워지면서 새로 모색된 것으로, 1차 침입 당시 黃州와 鳳州가 鐵島에 입보했던 경험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강화 천도 후 서경 관리들이 몽고 관인을 제거하고 해도에 들어가고자 한 것은 해도 입보가 미리 기획된 것임을 보여준다. 해도 입보는 기존의 생활 기반과 분리되기 때문에 입보에 따른 준비가 요구되었고, 지역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북계에서는 처음에 義州에서 開京에 이르는 간선로상의 주진들이 먼저 입보하였고, 내륙 주진은 고종 35년(1248)에 비로소 해도에 들어갔다. 이들은 대개 한곳에 다수의 주진이 함께 입보하였는데, 입보할 수 있는 도서가 제한적인 데다가 군사력 집중을 통하여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서해도 이남지역의 도서에 입보한 것은 강화도 방어와도 연관된다. 여러 주진의 습입은 고종 초 몽고의 침입에 대비해 여러 주진이 큰 城에 습입하도록 한 조치에서 원용한 것이다.

고려가 새로 해도 입보를 도모한 것은 기존의 산성 입보가 가지는 한계

때문이었다. 산성 입보는 미리 식량과 무기를 비축하고 빠른 입보가 가능했지만, 제한된 공간에서 장기전을 도모하기 어려웠다. 입보가 길어지면서 경작을 원하는 입보민과 방어에 치중하는 관리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비해 해도는 입보 과정에는 어려움이 컸지만 입보 후에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섬 안에서 개간을 통해 경지를 확보하고 식수를 마련하는 것도 가능했는데, 큰 섬일수록 더 나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정부에서는 섬 안의 토지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도 했다. 자연 남도지역에서도 해도 입보가 점차 확대되어 나갔다.

楊廣道지역에서는 고종 22년(1235) 南京과 廣州牧이 강화도에 흡수하였다. 이는 강화도의 인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기사에 계수관 단위로 언급된 것을 통해 실제 계수관 중심으로 입보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忠州牧은 고종 43년(1256) 당시 牙州 海島에 입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곳에 있던 忠州道巡問使가 군대를 보내 몽고군을 공격했으나 반격으로 몰살당했다. 이어 몽고군은 忠州山城까지 공격했는데, 당시 충주산성에도 일정한 군사력이 남아 성을 지켰다. 해도 입보는 군사력을 보존하여 몽고군을 공격하는 데 본령이 있었고, 산성 입보는 주요 요충지를 지켜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병행 전략은 강화 천도 이후 기획되었으나 고종 40년(1253) 전면화되었다. 한편 충주목이 입보한 아주 해도는 大府島로 판단되는데, 아주를 통해 상륙했기 때문에 아주 해도로 지칭되었다.

淸州牧은 같은 해 주민의 해도 입보 조치가 확인된다. 충주목의 군대가 몽고군 공략에 실패하고 그 여파로 충주산성까지 공격을 받게 되자 청주목의 피해를 우려하여 주민의 해도 입보를 시행한 것이다. 청주목의 입보처는 확인되지 않으나 지리적 관계로 보아 현재의 안면도로 추정할 수 있다. 청주목에서도 해도 입보와 더불어 산성 입보가 병행되었는데, 전라도 방면으로 내려가는 요충으로 다수의 군현이 흡수해 있던 公山城이 그 대상으로 이해된다.

全羅道 方面에서 이루어진 해도 입보 사례로는 槽島가 있다. 고종 42년 (1255) 12월 몽고군이 배를 만들어 槽島를 공격했으나 실패하였다. 정부는 이듬해 李廣과 宋君斐로 하여금 舟師를 거느리고 南下하여 방어하도록 했다. 靈光으로 내려간 이광은 도로 섬으로 들어가고 송군비는 笠巖山城을 지켰다. 조도는 영광 方面의 섬으로서 현재의 智島에 비정되며, 입암산성은 長城과 井邑 경계에 있는 요충이다. 당시 이 方面에는 두 곳으로 나누어 입보가 이루어졌고, 이에 맞추어 정부군도 둘로 나누어 움직였다. 조도에 입보한 행정단위는 全州牧으로 추정된다. 전주의 군사력은 남하하여 요새인 입암산성에 일차 입보하였고, 이어 영광 方面의 조도로 들어갔다.

남도 전반에 해도 입보가 진행되면서 몽고군도 해도 공격에 적극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전라도의 押海島가 車羅大의 공격을 받았다. 이에 압해도 주민은 大艦에 포를 설치하여 항전에 임했고, 몽고군의 이동공격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압해도에 군사력이 입보한 것을 반영한다. 당시 車羅大가 潭陽에 주둔한 것으로 보아 압해도 공격은 조도 공격과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현 전라남도 서부 해안지역에는 다수의 도서가 분포하고 있었는데, 군사력 보존의 측면 외에 이들 도서의 방어를 위해서도 입보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이 方面에서는 내륙의 군사력이 여러 섬에 나누어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비추어 압해도에는 전주목의 군대가 나누어 입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羅州牧은 珍島에 입보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진도는 3개 군현이 설치된 큰 섬으로서 해도 입보 후 육지의 군사 거점과의 연계성이 좋았다. 나주의 입보 상황은 직접 드러나지 않으나 三別抄의 항쟁 과정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진도에 자리를 잡은 삼별초는 출륙하여 나주와 전주 공격에 나섰고, 두 계수관은 서로 연락을 취하며 대응하였다. 특히 나주는 관내 군사력을 모아 錦城山城에 입보하여 삼별초에 맞섰다. 이것은 입보처로서 금성

산성과 진도의 유기적인 관계를 시사한다. 몽고군이 남하할 때 나주목은 금성산성과 진도를 근거로 대항했을 것이다.

나주의 진도 입보는 삼별초 진압 후 진행된 주민 분간 작업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당시 고려는 자신의 뜻과 다르게 삼별초에게 끌려다니던 사람들을 분간하기 위해 몽고에 거듭 국서를 보냈다. 여기서 고려는 “다른 섬이나 고을에서 진도로 들어왔다가 사로잡힌 자”를 적시하여 분간하고자 했다. 삼별초 입보 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삼별초에 호응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므로, 적시된 사람들은 그 전에 진도에 들어와 있던 인근주민들로 파악된다. 이들은 행정적으로 대개 나주목 관내에 속하므로 이를 통해 나주목의 진도 입보를 판단할 수 있다.

慶尙道 방면은 구체적인 입보 사례를 찾을 수 없으나 역시 해도 입보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崔沆 집권 말기 慶尙道水路防護別監이 되어 夜別抄를 거느리고 州縣을 순찰하며 海島 입보를 독려한 宋吉儒의 사례는 경상도 방면의 해도 입보를 보여준다.

고종 말 최씨정권이 무너지고 강화가 진전되면서 해도 입보도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입보민에게 出陸 耕種을 허락한 것은 그 예이다. 그러나 이는 정권 교체에 따른 일시적 조치로서 무신정권은 북계 주진을 중심으로 해도 입보를 유지하였다. 고종 46년(1259) 西京과 黃州의 주민을 德積島로 옮긴 것은 몽고군이 서경에 주둔하며 古城을 수리하고 戰船을 제작하는 등 장기 체류와 도서 공격의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한 대응이었다.

金俊을 제거하고 집권한 林衍은 원종에 맞서 다시 전면적인 해도 입보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東京의 해도 입보를 추진하던 중 지역 관리의 반발로 실패하였다. 동경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과는 달리 淸州牧 방면에서는 해도 입보가 진행되었다. 진주목 인근의 南海島는 珍島와 함께 삼별초의 근거지가 되었는데, 이는 앞서 해도 입보를 통해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남해도에 입보한 행정단위는 인근의 진주목으로 추정된다. 반면 거제도도 삼별초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는 해도 입보와 관련된

동경과 진주 등 두 계수관의 상황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대몽항쟁기 남도지역의 해도 입보는 계수관을 중심으로 한 지방행정 및 군사 운영체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으며, 산성 입보와 유기적으로 병행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이는 각 州鎭이 개별적으로 입보하며 행정단위의 이동을 수반했던 북계의 상황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몽항쟁기 남도지역의 사회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원고투고일 : 2013. 10. 1, 심사수정일 : 2013. 11. 12, 게재확정일 : 2013. 11. 20)

주제어 : 海島入保, 界首官, 忠州牧, 大府島, 淸州牧, 全州牧, 槽島, 押海島, 珍島, 南海島

<ABSTRACT>

The Southern regions' Resettlements on the Islands(海島入保) in Resistance of the Mongol Invasion forces

Yoon, Kyeong jin

Examined in this article are the resettlements on several Islands in the South sea, which were necessitated by the invading Mongol forces. The local governing and military operations during the Goryeo dynasty were traditionally overseen by the local commanders(界首官), and so were the 'resident resettlements.' Some units of the primary army were positioned on the islands so that they could preserve their operational capabilities. When it was necessary, they landed on the main land and fought the Mongol forces. Some of the forces occupied mountain fortresses in order to defend crucial inland bases.

Nam-gyeong(南京) and the Gwangju-mok(廣州牧) units of the Yang'gwang-do(楊廣道) province moved to the Gang'hwa-do island, and the Chungju-mok(忠州牧) unit entered the Daebu-do(大府島) island which was under the jurisdiction of A-ju(牙州). In case of Chungju-mok(清州牧), the units in several areas entered adjacent islands, and some of them entered Chungju Sanseong fortress (忠州山城) and Gongsan-seong(公山城) fortresses as well. In the Jeolla-do(全羅道) province, the Jeonju-mok(全州牧) unit entered both Jo-do(槽島, Ji-do[智島]) and Ab'hae-do (押海島) islands and engaged in maritime defense, while the Naju-mok(羅州牧) unit entered Jin-do(珍島) island to form a defense base. Areas in the Jeolla-do province also entered Ib'am Sanseong fortress (笠巖山城) and Geumseong Sanseong fortress(錦城山城). In Gyeongsang-do(慶尙道) province the Jinju-mok(晉州牧) unit entered the Nam'hae-do(南海島) island, but was not able to enter Dong-gyeong(東京) because of the officials there would not let them into the island.

Key Word : Resettlements on the Islands(海島入保), Local government commanders(界首官), Chungju-mok(忠州牧), Daebu-do(大府島), Chungju-mok(清州牧), Jeonju-mok(全州牧), Jo-do(槽島), Ab'hae-do(押海島), Jin-do(珍島), Nam'hae-do(南海島)